

<발표개요>

ㄱ 시김새의 개념과 갈래에 따른 구분 최헌(부산대학교 교수)

시김새의 개념

시김새 어원 : “식음” “식임” + 새(형국이나 모양)

김윤덕 : ‘시김새’라는 말은 ‘목을 이리 저리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라 하여 ‘시기다’에서 ‘시김’이 나온 말이라 하였다(이보형)

천이두 : ‘시김새’의 ‘시김’은 ‘음식이 잘 발효되어 좋은 맛을 내는 것’을 ‘곰삭다’ 하는데서 볼 수 있는 ‘삭다’에서 나온 것으로 보았다. ‘삭임’이 ‘식임’이 된 것으로 ‘식임새’이라 하였다.

이보형 : <천이두>의 식임 설은 본디 ‘시김새’의 개념에 가깝다는 당위성은 있지만, ‘삭임’이라는 말이 어찌하여 ‘식음’ 또는 ‘식임’으로 변하였는가 하는 음운적 변화 동인을 설명하기 어렵다.

이보형 : 앞에서 인용한대로 <박헌봉>이 “바디와 시김새가 좋다”라는 말을 예시하고 이를 “성량의 체계와 발성기교가 대단히 좋다는 말”이라고 해설하고 있는데 알 수 있듯이 고로 음악인들이 소리가 익숙하여 기묘한 성음기교를 발할 때 ‘곰삭은 소리’라는 말을 쓰는 것으로 봐서 이는 본디 ‘시김새’의 뜻과 부합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실제 연주자들 가운데 이에 동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황병기, 조순자)

서한범 : ‘장식음’이라는 말에서 ‘장’이라는 말을 뺀 ‘식음(飾音)’이라는 말에 ‘새’라는 말이 붙는 것으로 보았다.

시김새는 ‘삭임’ ‘곰삭다’ 등의 발효의 의미를 갖는다고 인식하는 것이 국악계의 일반적 견해로 보인다.

시김새의 정의

이혜구 : “시김새는 꾸밈음과 같이 느린 음악 또는 가사가 띠엄띠엄 낚는 노래[永言]에나 있지 빠른 음악에는 없다. 시김새라는 말은 아직까지 문헌에 보이지 않는다. 시김새·꾸밈음·목·농현이 혼용되고 있다. 예를 들면 ‘목 쓰는 요령(식음새)’(김정연 서도소리)에서는 꺾는 목이 시김새에 포함되었다.” (『한국음악이론』)

“시김새는 시금하다는 말에서 나온 것 같고, 시김새가 추와 퇴, 요와 충(또 전)이라면 시김새는 염매(鹽梅)라 하겠다.” (『한국음악이론』)

시김새의 종류

이혜구 : “농현이란 말은 문헌에 보이는데, 그 농현은 추推와 퇴退, 요搖와 충衝(또는 轉)을 말한다. 추는 음을 밀어 올리는 것이고, 퇴는 음을 흘러내리는 것이고, 요는 음을 흔드는 것이고, 충(또는 전)은 음을 꼭 구르는 것이다” (『한국음악이론』)

시김새의 위상

선율의 형성 과정

선율의 개념과 구성

음

시김새

장식음

간점(음형 : 선율 구성 요소)

원점(골격구조 : 변형구조, 곱놀이, 반복과 변화로 형식 구성)

시김새와 장식음

이혜구 : “꾸밈음은 본음에 추가된 장식음이고, 시김새는 본음 자체의 변화 또는 유동(流動)이라 하겠다.” (『한국음악이론』)

퇴성류 장식음 : 꺾는목

전성류 장식음

요성류 장식음

추성류 장식음

= 시김새의 범위 : 시김새와 장식음의 차이

시김새의 종류 : 搖聲 退聲 推聲 轉聲

「手法」『三竹琴譜』：兩指按絃 而進退不已者 謂之搖絃也 或前推 或後退 或衝絃 或微衝而又推之 或輕推而又退之 或隱隱然活動者 皆所謂弄絃

「手法標」『三竹琴譜』：手法皆標於名目之右傍 而搖絃則標 ㄨ 推絃則標以 退絃則標以 衝絃則標以 退而推絃則標以 < 推而退絃則標以 >

시김새의 기능

선법 토리의 성격 구분

본음의 강조 : 강약(액센트), 지속, 음정변화방지(음정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

가락 진행을 부드럽고 원활하게 함.

감정의 표현.

<참고문헌>

김정승 「정악의 평조와 계면조 시김새 연구 -각 악기 연주자의 시김새 분석과 현악영산회상의 악조 검토를 중심으로-」 『동양음악』 39 서울대학교 동양음악연구소 201606 29-67.

: “본고에서 사용되는 ‘시김새’는 넓은 의미의 시김새 중에서도 장식음의 의미를 제외한 농음, 퇴성, 추성, 퇴이추 등을 의미함을 밝혀둔다. 시김새를 음의 기능 또는 음의 장식법 등의 말로 달리 표현하지 않은 이유는 전자의 경우 주음, 중심음, 종지음 등을 뜻하는 용어로 해석될 수 있고 후자 또한 장식음의 의미와 유사한 용어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보형 「한국음악의 시김새 연구 방법 시론」 『』

: 시김새의 어원을 장식음의 ‘식음’으로 보는 견해

: “특이한 형태구조로 된 목과 이를 구사하는 기교능력”

송방송 「시김새」 『한겨레음악대사전』

: “선율을 멋지게 꾸미는 장식. 노래의 가락이나 악기의 선율을 아름답게 꾸미는 것을 시김새라고 하는데, 대체로 시김새는 세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노래의 가락이나 기악 선율의 첫머리를 꾸미는 법이고, 둘째는 가락이나 선율의 끝을 장식하는 법이며, 셋째는 가락이나 선율의 중간을 꾸미는 법이다. 넓은 뜻의 시김새는 요성, 농음, 정성, 퇴성 등을 포함하지만 좁은 의미의 시김새는 장식음을 가리킨다”

서한범 「시김새론」 『한국민속학』 제30호 한국민속학회 1998 73-106.

박헌봉 「목성음의 변화에 의한 분류」 『창악대강』

이혜구 「시김새」 『한국음악이론』

「手法」 『三竹琴譜』

「手法標」 『三竹琴譜』